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T커머스' 추진... 업계는 포화 '고전'

홈쇼핑 통해 데이터홈쇼핑 계획
중 알리·테무 등 해외이커머스 공세
SK스토아 등 5개 채널 실적 하락세

홈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T커머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5개 채널 대부분이 추정치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경쟁에 더해 최근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서비스까지 한국 시장에 가세해 무한 공습을 이어가는 등 시장이 격화되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단독 사업자 가운데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이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2년에 비해 하락했다.

매출의 경우 SK스토아 3293억→3015억, 쇼핑엔티 1663억→1500억, W쇼핑 1403억→1130억원으로 각각 나빠졌다. T커머스 업계 상위인 SK스토아는 특히 영업이익이 115억원에서 지난

〈T커머스 사업자〉

/자료=각사

사업자	채널명	오픈시기	
T커머스 단독 사업자	KTH	K쇼핑	2012.8
	쇼핑엔티	쇼핑엔티	2013.10
	신세계티비쇼핑	신세계쇼핑	2015.1
	SK스토아	SK스토아	2015.1
	더블유쇼핑	W쇼핑	2015.8
TV홈쇼핑·T커머스 겸업 사업자	롯데홈쇼핑	롯데OneTV	2015.3
	현대홈쇼핑	현대플러스샵	2015.4
	CJ오쇼핑	CJ오쇼핑플러스	2015.5
	GS홈쇼핑	GS마이샵	2015.7
	NS홈쇼핑	NS샵플러스	2015.12

해엔 1억원으로 99% 가량 추락했다. 쇼핑엔티(101억→71억원)와 W쇼핑(113억→86억원)도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쇼핑엔티는 태광그룹 계열인 티알엔(tn), W쇼핑은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미디어윌홀딩스가 각각 대주주다.

KT알파도 매출이 3250억에서 2930억원으로 하락했다. 다만 2022년 당시 -100억원으로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지난해엔 -72억원으로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신세계쇼핑의 경우 매출액(2725억→

2815억원)은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139억→129억원)은 추축했다.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T알파는 모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T커머스 채널들이다.

TV홈쇼핑이나 T커머스의 '몸집'을 의미하는 취급액도 대부분의 데이터홈쇼핑에서 감소했다.

SK스토아는 2022년 당시 1조2330억원에서 지난해 1조1395억원으로 7.6% 빠졌다. KT알파(9800억→9460억원), 쇼핑엔티(4150억→4130억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세계쇼핑(1조1890억→1조2229억원), W쇼핑(3710억→3810억원)은 취급액이 다소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홈쇼핑은 녹화를 통해 24시간 방송하고, 인기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등 탄력적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유통채널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지난해도 일부를 제외한 송출수수료가 오르는 등 비용 구조 역시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3월, 4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홈쇼핑이 T커머스 사업권을 획득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입점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T커머스사업 진출 가능성은 점점 무르익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홈쇼핑 지분 32.83%를 보유한 대주주다.

현재 7개 TV홈쇼핑 중에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5개사가 모두 T커머스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OneTV(롯데홈쇼핑), 현대플러스샵(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CJ오쇼핑), GS마이샵(GS홈쇼핑), NS샵플러스(NS홈쇼핑)가 여기에 속한다.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추가 개척, 기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 T커머스 보유 등의 이유를 들어 홈앤쇼핑의 T커머스 추가 진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지난해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중소기업계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미디어정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이 생기면 3년간 누적 1조원의 중소기업 매출증대 효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통해 매년 1379억원의 생산 및 683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128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분증 도용 청소년에 술 판매, 소상공인 구제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협의회
3개법 시행령 등 내달까지 개정 완료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등도 개정 진행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도 처음 참석,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누리마루에서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11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동안 논의해 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경우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약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도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

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신규광고 공개

정준호·남보라씨 등 출연

중소기업중앙회가 '24년도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가입자들이 함께한 노란우산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함께 써요, 노란우산!'과 '노란우산을 쓰다, 내 꿈을 쓰다!'라는 두 가지 콘셉트로 각각 2편씩 총 4편을 제작했다.

홍보대사 정준호·남보라씨와 함께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노란우산 가입자 및 가족들이 출연해 친근감을 더했다.

연기교사, 트로트가수, 약사, 운동강



중소기업중앙회가 새로 선보인 '노란우산' 신규 광고 캠페인 화면.

사 등 다양한 업종 20여명으로 구성된 노란우산 홍보모델은 노란우산 가입자·가족 1600여명 지원자 중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올 한 해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홍보 및 콘텐츠 영상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오는 18일

까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

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유통망 연계 해외진출 지원 ▲해외거점 활용 현지화 및 판로개척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은 문화 콘텐츠 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목적 사전검증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의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지원대상, 금리우대, 용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창업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

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새로 도입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제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중진공 김문환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제출자료 출처에 대한 검증 어려움 등이 있었다"며 "올해 신규 도입한 사전검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